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8월 11일 목요일 (음 7월 9일) 제162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전주, 재난위험시설 관리 '부실'

감사원 조사결과 점검대상 지정 시설 수백개 점검 않고도 한 것으로 꾸미기 '덜미'

500억원 드는 사업 타당성 조사 등 규제 회피하려는 '꼼수' 써

전주시가 재난이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시설을 관리를 부실하게 해 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전주시는 재난 예방 점검대상으로 지정한 시설 수백 개를 점검하지 않고도 한 것으로 꾸미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3월 전주시를 대상으로 한 기관운영감사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14건의 위법·부당사항 등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주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준공 15년이 지난 종교 시설·공동주택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 예방을 위해 지속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 1,753 개를 특정관리 대상시설로 지정, 반기별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 확인 결과 170개 시설이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에서 누락돼 안전점검을 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누락 시설에는 1915년 준공돼 연간 300만 명이 방문하는 유명 성당을 비롯한 종교시설 65개, 공동주택 32개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감사 기간 누락 시설 170개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1986년 지어진 한 공장시설이 철골구조 기둥 부식 등으로 인해 조속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C등급 진단을 받는 등 130개가 보수·보강이 필요한 B등급(128개)과 C등급(2곳)으로 평가됐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 점검대상 시설 1022개 가운데 기존에 A등급 평가를 받은 469개에 대해서는 실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고도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에는 안전점검을 한 후 A등급을 부여 한 것으로 허위 입력한 사실도 적발됐다.

안전점검 자체 부실 진행도 감사결



무더위에도 한산한 선풍기 가게

10일 전주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주 남부시장 한 선풍기 가게 앞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 드러났다.

지난해 하반기 실제 안전점검을 실시한 553개 시설의 점검 내용을 확인한 결과 매뉴얼상의 체크리스트가 아닌 담당자들이 자체 마련한 체크리스트로 점검(136개)하거나 아예 체크리스트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점검(417개)을 진행하고 있었다.

또한 공동주택, 종교시설, 대형건축물 등 276개 시설의 경우 평균 점검시간이 5~8분에 그치는 등 점검 자체도 소홀하게 진행됐다고 감사원은 지적

했다.

전주시의 부실행정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지방재정법 등에서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사업은 전체사업에 대해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를 받도록 한 규정을 피하려고 '꼼수'를 쓴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시는 2012년 6월 노후 산업단지 에 도로, 공원·녹지, 주차장 등 기반 시설을 확보하는 1,100억원 규모의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기본계획을 수

립한 뒤 '500억원 이상 사업'시 받아야 하는 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전주시는 전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을 우려해 사업비 499억원인 도로 부분을 떼어내 타당성 조사 없이 행정자치부의 투자심사 승인을 받은 뒤 실제로는 주차장과 공원·녹지를 포함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을 썼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삼례 나라슈퍼사건' 재심 첫 공판 연기

내달 7일로... 검찰, 기일 변경 신청서 법원에 제출

17년 만에 이뤄진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의 재심 첫 공판이 다음 달로 미뤄졌다.

10일 전주지법과 담당 변호사 등에 따르면 당초 이날 오후 1시 50분 전주지법 2호법정에서 최모(37)씨 등 3명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다음달 7일 오전 11시 30분으로 연기됐다.

이는 검찰이 "기일을 변경해 달라"며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은 지난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한 3인조 강도가 주인 할머니 유모(당시 77)씨의 입을 틀어막아 숨지게 한 뒤 현금과 패물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사건 발생 8일 후 숨진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던 청년 최씨 등 3명을 붙잡아 강도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징역 3년에서 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그러나 이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지

한 달 만에 이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이모(48)씨 등 '부산 3인조'가 부산지검에 검거돼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전주지검으로 사건이 이첩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혐의를 부인해 부산 3인조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나온 최씨 등이 경찰의 강압수사 등을 주장하며 지난해 3월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지난달 8일 최씨 등 3명에 대한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김영재 기자

사회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전부도민과 함께 호흡하며 지역발전의 대안 역할을 다하고 있는 전주매일신문사가 제능과 열정을 갖춘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정통직필의 사명감으로 지역언론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고 있는 전주매일이 따뜻한 가슴과 냉철한 이성, 창의적 사고와 진취적 자세를 겸비한 인재를 초대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구분	모집인원	자격조건
취재기자(경력·수습)	본사 0명	일기지 근무 경력자 우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 ▶ **접수기간** 2016년 8월 31일까지
- ▶ **제출서류** 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 ▶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접수처** 전주시 완산구 서도송동 568-80 4층
문의전화: 063-288-9700(본사 총무팀)
e메일: jjmaeil1@hanmail.net

전주매일

2016 리우올림픽 → 관련기사 13편

여자배구, 아르헨티나 '사냥' 배드민턴, 이용대-유연성 '출격'



2016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개막 6일째인 11일(한국시간)에도 한국 선수들의 금메달 사냥은 계속된다.

먼저 여자배구대표팀이 오전 8시 30분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조별리그 3차전을 치른다.

첫 경기에서 일본에 승리한 한국은 지난 9일 러시아전에서 접전 끝에 3-1로 패하며 1승1패를 기록중이다.

분위기는 좋다. 비록 패하긴 했지만 세계 최강으로 손꼽히는 러시아를 상대로 대등한 경기를 펼쳤다.

여자 배구는 12개 팀이 2개조로 나눠 상위 4개 팀이 8강전에 진출한다. 한국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카메룬과 경기를 남겨놓고 있다.

이용대-유연성조는 유력한 금메달 후보다. 이용대는 2012런던올림픽에서 정재성과 복식조로 출전했지만 동메달에 그쳤다. 이용대는 사실상 마지막이 될 이번 올림픽에서 유연성과 함께 금메달을 목에 걸고 중흥의 미를 거두겠다는 심산이다.

올림픽 8회 연속 단체전 금메달을 딴 여자양궁대표팀의 장혜진(29·IH), 기보배(28·광주시청), 최미선(20·광주여대)은 11일 오후 9시부터 개인전 16강전을 시작한다.

한국 선수 3명이 메달색을 놓고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결승전은 12일 오전 4시43분에 열린다. /김민근 기자

자연의 빛 생명의 빛 미래의 빛

제20회 무주 반딧불축제

The 20th Muju Firefly Festival

2016. 8. 27(토)~9. 4(일)

무주군일원 남대천, 반디랜드 반딧불 전통공예문화촌 등

www.Firefly.or.kr

- 주최 무주군
- 주관 사)무주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
- 주소 전북 무주군 무주읍 한풍로로 346
- 문의 063)320-5003-17

2017 무주 세계태권도 선수권 대회
2017 Muju WTF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8월 22일 - 6월 30일)